

도금업체 폐수처리 문제점과 대책

(주) MICRO' 과장 권 영국

폐수란 환경공학적 측면에서 자연정수기간이 오래걸려 자연에 영향을 미치며 물에 자연분해가 되지않아 사용후에 버리는 물을, 특히 도금 폐수는 중금속및 특정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폐수처리를 하는데 비중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 도금폐수 처리하는 방법에서 물리 화학적 처리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공장에서 같은 물질이 배출된다 하더라도 폐수처리 과정은 그 폐수의 특성에 따라 폐수의 종류를 구분하여 그에 적합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도금공장-폐수의 특성은 도금공정에 따라 많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폐수처리를 함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도금공정과 배출폐수량및 농도, 그밖에 문제되는 사항들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처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도금공장들을 보면 몇몇 큰 회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이고 영세적

이며 큰 회사내에 도금공정이 있더라도 도금방법이 재래식이며 전문 도금 기술자나 Engineering의 실무보다 노동을 위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특히 폐수에 대한 인식도는 도금하는 사람들로서는 거의 결여된 상태이다.

또한 경영주로서 폐수처리시설의 투자는 물적회수가 안되는 이유와 투자비용이 막 대하므로 투자를 꺼리게 되어 폐수처리를 하는 환경관리기사는 그공장에 적합하지 않은 폐수처리시설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데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반면 현재의 환경관계법규를 보면 아직도 폐수처리에 문제가 생길경우 그책임을 환경관리 기사들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환경관리기사의 지위나 보수가 타부서보다 떨어져 자칫 책임감과 사명감이 결여되는 수가 생김으로 기사의 대우문제도 생각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종합해 볼때 도금폐수처리에서의 문제해결 방안은 경영주가 폐수처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알맞는 투자를 할 것이며 도금실무에 임하는 사람들의 폐수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서 폐수분류나 함부로 약품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결국 환경오염관리란 어느 한계에서 국한될 수 없는 분야이다. 따라서 범국가적 측면에서 권장및 유도를 해야하는 만큼 그에대한 국민의식의 고도화가 요망되고 사업 경영인들의 직접적 책임하에 환경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